

■ 정부, 4월 6일 '온라인 개학' 카드 만지작 / 제주 준비상황은...

# 원격수업 체제·가정 학습환경 지원 분주

### 도교육청 시범학교 4곳 선정 내주부터 시작 준비시간 부족 교육 부실 우려 목소리 비등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4월 6일 정상 개학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 교육 현장도 다급해졌다. 가정,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학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원격 수업으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학 이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중지가 내려질 것

을 대비한 조치이기도 하다. 원격 수업 형식은 크게 세 가지다. 교사가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하는 '쌍방향'과 사전에 준비된 녹화 강의나 콘텐츠를 시청하게 한 뒤 일정 시간 교사가 강의하는 '단방향', 교사가 수업하는 대신에 학생에게 과제를 내고 이를 확인하는 '수행형 수업'이다. 교육부는 개학 하루 전인 4월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 수업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수업으로 출석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4월 3일까지 온라인 개학을 대비한 원격 수업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원격수업 시범 학교도 정했다. 이 기간 도원초등학교와 제주대학교대학부설초, 서귀포여중, 제주중앙여고 4곳에선 시간표를 정해놓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격 수업안을 고민하게 된다.

서귀포여중 관계자는 "2학년 중에 희망자 25명을 선착순 모집해 하루 2시간씩 여러 형태의 원격 수업을 혼합해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 진도와 관계 없는 내용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선 '디지털 격차'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준비 기간이 빠듯한 데다 교사 간의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 역량 차이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려운 탓이다. 가정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

는 것도 과제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가 없거나 자녀가 여러 명인데 기기가 한대 밖에 없어도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컴퓨터를 다루는 게 친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 도움이 필수인데, 맞벌이 가정에선 이 점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자 제주도교육청은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오는 30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제주 건설노동자 "재난 기본소득제 실시하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일감이 줄어든 제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관급 공사 조기 발주와 도민 재난 기본 소득제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감이 박혔다.

이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건설 물량은 반토막으로 줄어 건설기계 장비를 다루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비 할부금과 유지에 허덕인다"면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설노조는 "일용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급식실 식탁에 칸막이 설치** 26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소 식탁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도내 각급 학교는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김희만기자

##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긴급돌봄 현황 실태조사 "교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불가능"

### "일부 학교는 담당교사 배치 안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이 운영 중이지만 일부에선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8%가 긴급돌봄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 우려'를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10명 이내로 분산해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실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68%),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있는 가정이 아이를 보내도 사전에 방지방 방법이 없다(59.2%)는 이유였다.

마스크 부족을 경험하거나 이를 지급 받지 못한 전담사도 전체 응답자의 61.1%나 됐다. 임신이나 기저질환 등 돌봄전담사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사례는 24%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선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전담사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돌봄교실 추진 조직을 구성할 때 담당교사를 두도록 한 제주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배치된다는 것이 교육공무직 제주본부의 주장이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일부 학교에선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오전, 오후 돌봄 모두 전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밀한 대책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질본 "평년보다 2주 빨라"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됐을 때 발령한다. 올해는 제주 등 남부지역의 1~2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2.6℃ 높은 이유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 출현시기가 빨라 2주 가량 일찍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하고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은 설명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7일 금요일 음 3월 4일 (11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90%	제주	70%
90%	성산	70%
90%	고산	20%
90%	서귀포	70%

### 주간예보

내일	흐림	8/12℃
모레	구름 많음	7/15℃

###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16℃, 낮 최고 기온은 13~17℃의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박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28	달뜨기 08:06
해짐 18:51	달짐 21:23
물때 만조 00:08	간조 06:38
12:15	18:47

###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 오늘까지 최대 300mm 비

제주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27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남부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와 동부, 서부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제주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예상 강

수량은 50~150mm이며, 산지 등 많은 곳은 30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 바다와 제주 육상에 풍랑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산지와 남부, 동부 중산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속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인문인 개인 소장품,  
유물 기증 캠페인

전·현직 인문인의 역사를 기록하여, 저널리즘의 가치와 그 숭고한 길을 되짚어 다시 세우는 상징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증기간 : 2020년 3월 2일 ~ 4월 15일    ☑ 기증품목 : 물품, 자료, 사진, 그림 등 부도물을 제외한 모든 인문관련 소장품

☑ 기증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02-2001-7760) ※ 4월 말 개관 예정인 '미디어 교육원'에 상설 전시 예정